

LPGA 뛰던 김효주·최혜진, 올해 첫 KLPGA 출격

내일부터 롯데 오픈 출전 이예원·고지우 등과 경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정상급 기량을 펼치는 김효주와 최혜진이 국내 팬들을 만난다.

두 선수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6684야드)에서 펼쳐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5회 롯데 오픈(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세계랭킹 9위 김효주는 LPGA 투어 통산 7승을 거둔 톱클래스 선수다.

올 시즌엔 지난 3월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4월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했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챔피언십에선 국내 팬 앞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썼다.

김효주는 지난달에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으나 최근 컨디션 조절에 전념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그는 KLPGA 투어를 통해 "국내 팬들을 볼 때마다 항상 큰 힘을 얻는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팬들과 스폰서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훈련하고 있다"



김효주

고 덧붙였다.

김효주는 2020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인연이 있다.

해외파 최혜진도 최근 상승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그는 LPGA 투어 진출 후 우승 경험이 없지만, 올 시즌 출전하는 대회마다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LPGA 투어 12개 출전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10'에 올랐다. 특히 마이어 클래식 준우승,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 공동 4위를 포함해 최근 4경기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롯데 오픈 우승자인 최혜진은 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그는 "올 시즌 KLPGA 투어에 처음 출전하는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며 "최근 샷과 퍼트 감각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진

난코스인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던 최혜진은 "페어웨어나 그린을 놓치면 플레이가 까다로운 코스"라며 "실수를 줄이는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고 소개했다.

국내파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올 시즌 KLPGA 투어 3승을 거둬 다승 1위를 달리는 이예원은 네 번째 우승을 노린다.

최근 열린 맥콜·모나 오픈에서 KLPGA 투

어 54홀 최소타 타이기록(23언더파 193타)을 쓴 '버디 폭격기' 고지우는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고지우의 동생인 고지원도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1년 9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이가영은 2연패에 도전한다.

박현경, 이동은, 홍정민, 방신실, 노승희, 김민선, 정윤지, 김민주, 박보겸은 시즌 2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12억' 황태의 '연봉킹' ...8억원 양효진·강소휘 '연봉퀵'

KOVO 2025-2026 선수 등록 AI페퍼스 연봉 1위는 박정아

한국프로배구연맹(KOVO)이 지난 30일 2025-2026시즌 선수 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공시했다.

장소연 감독이 이끄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FA 이적생 고예림을 포함해 14명을 등록했다. 팀 최고 연봉 타이틀은 박정아가 차지했다.

남자부에서는 7개 구단 총 111명의 선수가 등록을 마쳤다.

대한항공이 19명, KB손해보험 17명, 현대캐피탈 16명, 우리카드 16명, 삼성화재 15명, OK저축은행 15명, 한국전력 13명 순이다.

여자부에서는 7개 구단 총 104명의 선수가 새 시즌을 맞는다.

구단 별로는 흥국생명 18명, 정관장 15명, IBK기업은행 15명, GS칼텍스 15명, 현대건설 14명, 페퍼저축은행 14명, 한국도로공사 13명이다.

남자부 평균 보수는 2억 3400만원으로 지난 시즌 2억 2300만원보다 110만원 증가했다.

남자부에서 가장 보수가 높은 선수는 KB손해보험 황태의이다. 그는 연봉 9억원, 옵션 3억원 등 총액 12억원을 받아 2020-2021시즌(7억 3000만원)에 이어 5년 만에 순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지난 시즌과 같은 10억 8000만원(연봉 7억 5000만원·옵션 3억 3000만원)을 받는 대한항공 한선수가 2위다.

FA로 KB손해보험으로 이적한 임성진이 8억 5000만원(연봉 6억 5000만원·옵션 2억원), 대한항공 정지석이 8억 2000만원(연봉 6억원·옵션 2억 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대캐피탈 허수봉(연봉 8억원)과 KB손해보험 나경복(연봉 6억원·옵션 2억원)은 나란히 8억원으로 5위에 랭크됐다.



배구 황제 김연경이 떠난 여자부의 평균 보수는 1억 6300만원으로 지난 시즌 평균 보수(1억 6100만원)보다 200만원 증가했다.

현대건설 양효진과 한국도로공사 강소휘가 각각 연봉 5억원, 옵션 3억원 등 총액 8억원을 수령하면서 보수 1위다.

지난해 김연경과 보수 총액 공동 1위였던 강소휘는 이번 시즌에는 양효진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 양효진은 FA 잔류계약으로 연봉과 옵션이 각각 1억원씩 올랐다.

이러 박정아가 7억 7500만원(연봉 4억 7500만원, 옵션 3억원), IBK기업은행 이소영이 7억원(연봉 4억 5000만원·옵션 2억 5000만원), 현대건설 정지훈이 6억 5000만원(연봉 4억 5000만원·옵션 2억원)을 받는다.

한편 페퍼스 류선아 등 28명(남자부 12명·여자부 16명)이 자유신분선수로 등록됐다. 이들은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바둑 하나은행 슈퍼매치 결승 '신박대전'

랭킹 1위 신진서 vs 2위 박정환

오랜 기간 한국바둑을 지배하고 있는 부동의 랭킹 1-2위 신진서(25) 9단과 박정환(32) 9단이다 시 한번 결승에서 맞붙는다.

신진서와 박정환은 "2025 하나은행 바둑 SUPER MATCH"에서 국내 대회 최고 우승상금 7500만원을 놓고 3번기를 벌인다.

결승 1국은 오는 5일 열리고, 2국은 12일, 최종 3국은 18일 예정이다.

우승 상금은 75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5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누적(피서)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시간 40초다.

신진서는 이번 대회 16강부터 홍성자·이지현·박민규 9단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박정환은 강유택·강승민·신민준 9단을 연파했다.

통산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박정환에 46승 24패

로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이었던 지난 5월 LG배 16강에서는 박정환이 17연패의 사슬을 끊고 신진서에게 일격을 가했다.

두 기사가 결승에서 맞붙는 것은 통산 14번째다. 앞서 13번의 타이틀전에서는 신진서가 9회, 박정환이 4회 우승했다.

작년 슈퍼매치에서는 4강에서 강동운 9단에 패했던 신진서는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딛고 결승에 진출해 기쁘다"며 "박정환 9단과의 결승전이 기대되고, 내용과 결과 모두 좋은 바둑을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정환은 "준결승을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운이 많이 따른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결승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바둑 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2일 열리는 결승 2국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면 신진서·박정환이 함께하는 릴레이 바둑이 열린다.

/연합뉴스

LPGA 투어 41승 웹, US 시니어 여자오픈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무려 41승을 쌓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카리 웹(호주)이 US 시니어 여자 오픈에 처음 출전한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웹이 오는 8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라비스타의 샌디에이고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US 시니어 여자 오픈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올해 50세인 웹은 45세 이상이 출전할 수 있는 LPGA 시니어 투어인 레전즈 오브 더 LPGA에서는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50세 이상이라야 출전 자격을 주는 US 시니어 여자 오픈에는 이번이 처음 나서게 된다.

지난 2022년 LPGA 레전즈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웹은 US 시니어 여자 오픈 정상에 오르려면 레전즈 오브 더 LPGA의 양대 메이저대회 모두를 우

승하는 진기록을 세운다.

웹은 LPGA 투어에서도 '메이저 사냥꾼'으로 명성이 높다.

통산 41승 가운데 7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따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5개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모두 수집하는 이른바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다.

한편 이 대회에서는 현역 시절 웹과 필생의 라이벌로 꼽혔던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출전한다. 소렌스탐은 이미 지난 2021년 US 시니어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다.

또 올해 86세의 조앤 카너(미국)도 작년에 이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카너는 작년에 1라운드 85타에 이어 2라운드에서 80타를 쳐 박수 받았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 장소 :
 2025-06-14(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6-21(토) 16:30, 19:00 / 쌍암리근린공원
 2025-06-28(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7-04(금) 19:00 / 교통문화연수원

문의 : 062-522-8716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